

한·중 보건의료 협력 체계 강화



중국예방의학과학원 기생충병 연구소 馮正 소장, 중국 Guangxi 보건 및 성인 병센터 王樹聲 소장을 비롯한 중국 기생충학자, 정부 보건관리자 10명이 지난 10월 19일부터 28일까지 내한하여 건협과 관련기관 등을 방문하는 한편 한·중 워크숍에도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한·중 보건의료분야 협

중국 보건관리자 등 내한

력사업의 일환으로 기생충관리 분야의 교류 촉진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이루어졌으며 기생충관리 및 보건계몽교육에 관한 전반적 사항, 보건정책 수립 및 양국 기생충 퇴치 협력 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이들은 이번 방문기간 동안, 한·중 기생충관리 워크숍(10월 20일) 제37차 대한기생충학회(10월 26일) 등에 참석해 우리 나라 기생충관리 현황 및 경험, 기술 등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 이들은 또 건협 부산·대구·제주 지부 등을 방문하고 우리 나라의 국민 건강증진 시설을 견학하기도 했다.

에이즈 예방 홍보 사진전

부산시 주관, 건협 부산지부 등 후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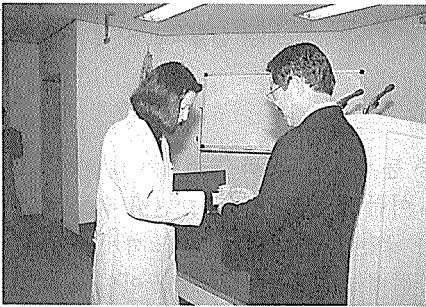
에이즈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에이즈 예방 홍보 사진전”이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부산시내 지하철역 및 대학 구내 등지에서 있었다.

부산광역시가 주관하고 건협 부산지부 및 대한결핵협회 부산지부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사진전시회에서는 「AIDS!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를 주

제로 하여 관련 사진 30여점이 선보였으며 각종 AIDS 정보 전달을 위한 안내문도 비치되어 에이즈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번 사진전은 지하철 범일동역(9월 22일~26일), 중앙동역(26일~28일), 연산동역(29일~10월 2일), 부산대(4일), 경성대(5일), 부산여대(6일) 등에서 개최되었다.

친절·모범직원에 이은희씨 선정·표창



건협 광주·전남지부가 매 분기마다 친절·모범 직원을 선정하여 표창하기로 하고, 3/4분기 모범직원으로 방사선사 이은희씨를 선정했다.

친절·모범직원은 과소별로 후보를

건협 광주·전남지부, 매 분기마다 선정키로

추천하여 전 직원의 직접·비밀투표를 거쳐 선정되는데, 이은희씨는 3명의 후보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지난 10월 14일 지부 보건교육관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받았다.

조수남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은 이 자리에서, 『친절·모범직원 선정을 계기로 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친절봉사를 생활화함으로써 내원자들이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친절안내요원 제도 실시

건협 경기지부, 내원자 불편 해소 위해

건협 경기지부가 지난 9월 18일부터 1일 친절 안내요원제도를 실시해 협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대리급 이상의 직원 1명씩이 매일 돌아가면서 내원자 대기실에서 협회 방문객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기로 한 것.

1일 친절 안내요원은 친절 관련 내용이 담긴 어깨띠를 착용하고 내원자의 안내, 검사상담, 지체 부자유자 부축 등을 함으로써, 내원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양로원 수용 노인

무료검사

건협 제주지부, 남제주 양로원 방문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는 지난 9월 19일,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남제주 양로원을 방문해 수용 노인 37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진단을 실시했다.

건협 제주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편의를 위해 이동검진차량과 함께 전문의·방사선사·임상병리사·간호사·사무원 등으로 구성된 진료반을 파견하여 심전도·혈액·소변·X-Ray 검사와 건강상담을 실시했다.